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팁/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발 신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수 신 : 각 정당 아동인권 정책 담당자
-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 문 의 :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난다 (
- 붙 임 : 각 정당에 보내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 질의서> / 총 3쪽

"아동학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요청 및
정책질의서 답변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실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입니다.

2.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에 이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관심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당의 담당자 분들을 초청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 각 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때: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2시~4시

곳: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

구성

[발제] 아동학대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정책 발표] 우리 당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 (각 당 정책 담당자)

[질의와 토론] 청중 질의와 종합 토론

3. 토론회 참석 여부 및 아래에 첨부된 정책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늦어도 2016년 3월 16일(수)까지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담당자 메일** _____)로 보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토론회 참석 유무와 관련 없이 아래 첨부한 정책질의서에 대해 서면 답변은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련된 정책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내시는 것은 환영 하되, 아래 첨부된 질문에 따른 답변은 반드시 별도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서면 답변서는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 보도자료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정책 질의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시오.